



# “만원대 가성비부터 초고급 한우까지 트렌드 선물세트로 마음 전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고르기가 한창이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휴가 활용 여부에 따라 최장 9일동안 쉬 수 있어 여행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 편히 긴 여행을 즐기 위해 미리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려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구매도 증가한 모습이다. 유통가는 올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저렴한 선물세트부터 희소 가치있는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친환경 동물복지 등 가치소비에 주목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메트로경제는 유통 채널별로 추석 선물세트 트렌드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2024년 추석 선물 세트를 홍보하는 모델들 /롯데백화점

## 축산·청과 ‘엘프르미에’... 초 프리미엄 차별화

###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엘익스클루시브 라인 등 프리미엄 상품 강화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2024년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의 키워드는 ‘초 프리미엄(超Premium)’, ‘익스클루시브(Exclusive)’, ‘큐레이션(Curation)’이다. 전격적으로 선물의 품격을 높여 프리미엄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롯데백화점의 차별화된 선물 세트도 엄선해 판매한다  
축산 및 청과 등 전통 명절 선물은 ‘엘프르미에’ 라인으로 선보인다. 올해 새롭게 론칭한 ‘엘프르미에’는 산지부터 패키징까지 롯데백화점만의 엄격한 기준을 거친 최상위 선물 세트로 ‘초 프리미엄 신선’을 테마로 한다. 또한 ‘엘익스클루시브(L Exclusive)’ 라인도 새롭게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돈 멜로×김한기 아트스페셜 에디션’과 ‘바론 리카솔리×김선우 아트스페셜 에디션’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

## 1++ 한우 중 마블링 최고등급 ‘현대명품’ 선배

### 한우 선물세트

구이용 한우 물량 확대... 소포장 상품도

최근 5년간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분석한 결과 한우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추석에는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 10명 중 3명꼴로 한우 선물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전체 추석 선물세트 가운데 한우 선물세트 비중이 5년 전 24.9% 수준이었으나, 매년 수요가 늘어 지난해에는 29.8%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선물세트의 선호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우 선물세트 부위별로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5년 전에는 짬, 국거리 등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제사 수요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구이류 및 소포장 상품의 고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감안해 현대백화점은 올 추석 예약 판매 기간 고객들이 많이 찾는 구이용 한우 선물세트 물량을 30%가량 확대했다. 명절에 흠파티를 즐기는 1인 가구를 위한 한우



현대백화점 한우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는 고객 /현대백화점

소포장 상품도 준비했다. 특히 갈수록 초고급 한우 선물세트의 선호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1++등급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 최고 등급(No.9)만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300만원)과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200만원)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신세계 이마트

## “사과·김 등 인기상품 미리 준비하세요”

### 사전예약 선물세트

사전예약 1차 기간 역대 최고 매출 달성

신세계 이마트의 올해 추석 ‘사전예약 1차 기간’이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23년 추석 ‘사전예약 1차 기간’이 올해보다 4일 많음에도, 그 매출을 뛰어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일간)으로 비교하면 올해 매출은 8%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전예약 1차 기간’이 가장 혜택이 많아 고객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차 기간 중 마지막 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역대 추석 중 하루 최대 세트 판매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전예약 매출 호조에는 일찍 살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얼리버드’ 고객 이외에도, 가격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성비’ 세트도 한 몫 했다.

대표적으로 사과와 배 등 여러 과일이 혼합된 ‘과일 혼합 세트’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면서 눈에 띈다. 작년 작황 부진으로, 값비싼 저장사과에 지친 고객들의 수요가 햇사과에 몰렸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최빛나 기자



모델들이 이마트 추석 사전예약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

한우 선물세트 역시 ‘한우 갈비 세트’부터 구이용 상품이 포함된 ‘한우 혼합 세트’까지 모두 두 자리 수 이상 매출 신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산 선물세트에서는 ‘옥돔’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원초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이 급상승했던 ‘김’의 경우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와 통합매입을 진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가격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롯데마트

## ‘샤또 페트뤼스 2017’ 등 400여종 라인업

### 주류 선물세트

와인·위스키·전통주 물량 대폭 확대

롯데마트가 올 추석 실속족과 플렉스족을 모두 만족시킬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실속형 선물세트부터 최고급 품격을 선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추석을 맞아 각기 다른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주류 선물세트 400여종을 선보인다.

먼저, 지난 추석과 비교해 3만원대 이상 8만원대 이하의 가성비 와인 2류음 선물세트 물량을 약 30%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 ‘이탈리아 우마니룬끼 비고르 세트’를 엘포인트 회원대상으로 3만6900원에 판매한다. 1만원대 가성비 선물 상품으로는 ‘포르투발도우로토

니 포트’가 있다.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위스키 선물세트 물량도 약 40%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 ‘오반 디스틸러스 에디션’과 ‘달위니 디스틸러스 에디션’을 각 18만2800원, 16만9800원에 판매한다. 전통주 상품 수도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렸다. 대표 상품으로 최고급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1924 100주년 에디션’이 있다.

아울러 롯데마트의 주류 전문매장 보틀병커에서는 보틀병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최고급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보르도 뽀므롤의 상징인 ‘샤또 페트뤼스 2017’은 800만원대, 2010년 5대 샤또(샤또 라푸르,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라피트 로칠드) ‘그레이트 빈티지 2010 그랑크뤼 클라세’ 라인업은 각 100만~300만원대로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롯데쇼핑 상품기획자들이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